결집 나선 文, 정공 돌파 安, 탄력 받은 洪

개혁보수 기치 어디가고…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가운데) 등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집단 탈당,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으로의 복당과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당초 14명이 이날 탈당하려고 했으나 정운천 의원은 3일 후에 지구당에서 탈당을 선언하기로 했다고 홍문표 의원이 전했다. 왼쪽부터 홍일표, 김학용, 박성중, 여상규, 박순자, 이군현, 홍문표, 김재경, 김성태, 황영철, 이진복, 권성동, 장제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13명 집단탈당…대선구도 출렁

민주·국민의당 비난 공세
문재인 "될 사람 밀어줄 것"
안철수 "선명성 부각 기회"
유승민 "끝까지 완주할 것"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들의 집단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면서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우선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 파동으로 인한 '표의 이동'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보수 진영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에게는 당장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이른바 홍 후보가 2위인 안 후보를 누르는 '실버 크로스'가 현실화되면서 '샤이 보수'가 막판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성향 지지층 표를 문 후보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자 문 후보 측은 더 강하게 지지자들을 결집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위원장은 2일 "정의당은 다음 선거에 지지하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이번에는 정권교체에 집중하는 게 시대정신 아닌가 호소한다"고 밝히기고 했다.

국민의당은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이번 변수로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면서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2일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 측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독주 체제 속에서 집단탈당 사태로 대선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과거식 대결정치의 폐해를 부각하며 '미래'와 '통합'을 기치로 내거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 기득권 정치의 타파를 주장해온 안 후보의 선명성이 이번 파동을 계기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 후보에 보수층이 어느 정도 결집할지 주시하고 있다. 집단 탈당이 홍 후보로의 보수 표심 결집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 측 일각에선 코너에 몰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와 주목된다.

반면 홍준표 후보 진영은 고무된 표정이다. 최근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힌 상황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의 가세로 안 후보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까지 기대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미 국민 의사로 단일화가 됐다"면서 "이제 승세로 돌아섰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 진영에서는 이번 탈당 사태를 계기로 대선 구도를 문 후보와의 '좌우 대결'로 몰아가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에 대해 기자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제가 부덕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5월 8일 밤 12시까지 국민을 만나고 끝까지 (갈 것)…"이라며 "5월 9일 국민의 선출(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독자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바른정당은 당초 33명에서 이미 탈당한 이은재 의원을 포함해 14명 의원이 탈당해 한국당으로 빠져나감으로써 19명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정운천 의원까지 동참하면 바른정당은 18석으로 줄어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창당 100일 이틀 앞두고…바른정당 와해 위기

참보수 외치며 박근혜 탄핵 주도
유승민 지지율 답보에 탈당 사태
"웃지 못할 코미디" 안팎 비난 비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고 대안 보수로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바른정당이 소속 의원 13명의 집단 탈당으로 창당 98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바른정당은 신생 정당이었지만 잠재력 면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애초 소속 의원만 32명으로 창당 직후부터 원내 제4당 자격을 꿰찬 데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보수진영의 대권잠룡으로 분류됐던 인물들도 속속 결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바른정당은 국민의 주목을 끄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3월28일 대선일을 42일 앞두고 주요 정당 중 가장 먼저 유 후보를 대선후보로 확정, 일찌감치 대선행보에 돌입했으나 유 후보의 지지율은 줄곧 5% 안팎에서 답보했다.

유 후보의 지지율 부진이 장기화하자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유 후보를 향한 보수후보 단일화 요구가 노골화됐다. 하지만, 유 후보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이날 오전 집단 탈당했다.

탈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친북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는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과 과정을 고려하면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 대다수는 작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거부하고 탄핵소추안 추진에 힘을 실어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게 한 주역들이다.

그런데 친박(친박근혜)계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한국당이 그대로 남아있고, 홍 후보조차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태극기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선거 전략을 일정 부분 채택한 상태다.

그들은 지난해 말 창당 선언문에서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며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친박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바른정당 잔류파 의원들은 이들의 탈당을 비판하고 개혁보수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다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대로 된 보수를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는 여전히 바른정당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서는 안될 정당이라고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는데 상황이 좀 어렵다고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뒤집나"며 "반기문 눈치 보고 안철수 눈치 보고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와서 당을 떠나는 건 웃지 못 할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 역시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보수의 잘못을 또 덮고 간다면 이번엔 집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려면 보수가 바뀌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한국당 친박계,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 성토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일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해 한국당으로 '원대복귀'하기로 한데 대해 "원칙도, 명분도 없다" "처절한 반성부터 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한선교·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이날 바른정당을 떠나 한국당으로 복귀, 홍준표 대선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의원 13명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개별적으로 냈다.

서 의원은 입장문에서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철학은 고사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치도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입장자료에서 "한국당에 불을 지르고 나갔는데 이제는 100일도 안 돼 자기들이 만든 당을 다시 탈당한다"면서 "한국당이 온갖 수모를 겪고 좌파세력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때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인데, 정치가 이런 것인지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보수의 본가라고 억지를 피웠던 사람, 그 절반이 이제 선거 1주일을 앞두고 한국당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수대통합은 야밤이 아닌 백주에 홍준표·유승민·조원진 후보가 직접 보수후보 3자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 선거판이 급하다고 야밤에 바른정당 몇몇 의원을 불러내 꼬시듯 지지선을 유도한 건 정치 도의와 어긋난 처사"라면서 "오히려 홍 후보가 배신에 배신을 부추긴 셈"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홍 후보에게도 겨눴다.

앞서 이철우 사무총장은 바른정당에서 역탈당해 한국당으로 복귀하는 의원들에 대해 "당내 절차에 따라 복당 허가를 하도록 하겠다"라며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으나, 이후 정준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입당을 신청할 경우 복당 여부는 대선 후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